

# 담양 자체 개발 딸기 '담향' '죽향' 인기몰이

### 비싼 가격 불구 수도권 소비자에 큰 호응 연 1만4000t 생산 580억 매출... 15일 품평회

담양군이 자체 개발한 신품종 '담향'과 '죽향'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12일 담양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서울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 식품관 명품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딸기 페스티벌'에 담양 죽향이 전시·판매 돼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실제로 현대백화점에 납품되고 있는 '죽향'은 1박스(2kg, 특상품)에 4만원에 판매됐는데 이는 레드필보다 5000원이 더 비싼 가격이다. '담향' 또한 서울 가락시장에서 1박스(2kg, 특상품)에 2만7000원 하는 실량보다 3000원 더 높은 경매가격이 형성됐다.

담향과 죽향은 국내에서 최초로 딸기 부문에서 지리적표시등록(제70호)과 ISO9001, ISO14001 인증을 동시에 획득한 품종이다. 담양에선 현재 1190 농가에서 358ha의 딸기를 재배하고 있으며 가락동 도매시장 점유율 28%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전국 3대 딸기 주산지다. 연간 1만4000t을 생산, 580억여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담양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006년부터 군 역점시책으로 '딸기 신품종 육성사업'을 추진해 7년여의 연구 끝에 군 자체 품종인 담양 1호 '담향'



서울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에서 열리고 있는 '딸기 페스티벌'을 찾은 고객들이 담양 죽향 딸기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담양군 제공>

(潭香)과 담양 2호 '죽향(竹香)'을 개발, 지난해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 출원까지 마친 상태다. 아끼히메와 매향의 교잡종인 '담향'은 원형이며 복숭아 향이 나며

기존 실량보다 강도면에서 우수할 뿐만 아니라 개화기가 빨라 조기 수확이 가능하다. 레드필과 매향의 교잡종인 '죽향'은 평균당도가 레드필보다 뛰어나 수출에 유리하며 흰가루병

에 강한 저항성을 갖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지역농업특성화사업'에 2011년, 2012년 연속 선정됐으며 2015년까지 신품종 명품화 단지를 100ha까지 확대·육성할 계획이다. 한편 농업기술센터는 15일 딸기 생산 농가와 농촌진흥기관, 국립종자원, 유통업계 관계자와 소비자 단체 등이 참가한 가운데 '담향'과 '죽향'에 대한 평가회를 갖고 해외 품종 출원과 해외 수출기반 조성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신품종 딸기 육종을 주관한 농업기술센터 이철규 박사는 "담양에서 육성된 신품종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적응작형 기술을 개발하고 우량묘 생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gg@

# 벼 키다리병 방제 해법 찾았다

### 전남도 농업기술원, 온탕 소독법·유기농 자재법 개발

전남도농업기술원이 친환경 벼농사의 고민인 '키다리병' 방제 해법을 내놓았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12일 벼 키다리병 방제에 뛰어난 효과를 발휘하는 온탕(溫湯)소독법과 유기농 자재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일반 재배 농가에서는 그동안 키다리병 방제를 위해 프로클로라즈 유제와 살충제를 섞어 볍씨를 소독해 사용했다. 그러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재배 농가는 사뭇 사정이 다르다. 농약이 한 방울이라도 묻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볍씨 소독부터 큰 고민거리다. 도 농기원은 이같은 고민 해결을

위해 기존 온탕 소독법에 유기농자재인 석회황을 더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볍씨를 60℃의 물에서 10분간 담근 후 곧바로 꺼내어 찬물에 식힌다. 이후 30℃의 물(20ℓ)에 석회황(22%)을 50배 희석(440ml)한 후 볍씨를 하루동안 담그면 된다. 소독이 끝나면 물로 잘 씻어서 씨를 띄우고 파종하면 된다. 소독 때 석회황을 사용한 용기를 다시 화학농약으로 소독할 경우 약해(藥害)가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소독용기 구분 등 세척에 유의해야 한다. 도 농기원은 지난 3년간 이 방법으로 씨를 띄운 볍씨를 파종한 결과 98%의 소독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벼 키다리병은 주로 종자 속에 있는 곰팡이로 발병한다. 감염된 벼는 웃자람이 심해 못자리 초기부터 말라 죽거나 감염 정도에 따라서 모내기 이후까지 발생, 심하면 수확량이 최대 40% 이상 줄어든다. 이 병은 감염된 종자를 계속 사용해 발생한다. 철저한 볍씨 소독만이 가장 효율적인 방제법이다. 도 농기원 친환경연구소 신길호 박사는 "온탕소독 할 때 너무 많은 볍씨를 넣으면 온도가 낮아져 소독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물의 양을 소독할 볍씨의 10~20배로 충분히 넣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남지역 친환경 벼 재배면적은 6만3000ha로 전체 17만1000ha의 35%에 달하고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보리밭서 봄 만끽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인 12일 김진만(漣)이 내려다보는 미량면 언덕배기의 보리밭을 찾은 어린 아이들이 지칠 줄 모르고 이곳 저곳을 뛰어다니다며 따뜻한 봄을 만끽하고 있다. <장진만 제공>

# 中 '샤먼가무극원' 광양 온다

### 20일~25일 교류음악회

중국 샤먼(廈門)시를 대표하는 '샤먼가무극원'의 수준급 전문 예술인들이 20일부터 25일까지 광양시를 방문한다. 광양시는 국제우호도시간 문화·예술교류 활성화를 위해 한·중 교류음악회를 기획, 중국 내에서도 문화예술의 도시로 유명한 샤먼시의 예술대표단을 초청했다. 샤먼가무극원(단원 208명, 악단 연

주자 82명)은 1961년에 창립돼 악단, 무용단, 오페라극단, 합창단을 비롯해 1200여 석의 전용극장, 무대 미술센터, 창작실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 방문하는 예술대표단은 왕푸리(王福立) 샤먼가무극원 원장을 단장으로 1명의 지휘와 12명의 연주자, 샤먼시 공무원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지휘를 맡은 쑤영(孫瑩, 샤먼악단 음악총감독)은 프랑스에서 지휘가 마에스트로 과정을 거친 유명 지휘자

로, 파리국립고등음악원 관현악단과 마시(MASSY) 오페라극단 공연무대를 지휘한 경력이 있다. 단원들은 고쟁, 양금, 삼현, 소르나이, 비파, 피리, 이호, 생황 등 중국 전통악기를 연주하게 된다. 광양시립국악단과 샤먼가무극원 예술대표단은 21일부터 이틀간 한·중 합동연습을 통해 호흡을 맞춘 뒤 22일 오후 7시 30분 광양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아리랑, 아시아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환상적인 교류음악회를 선보일 예정이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



지난 9일 '멘토링 관계형성 프로그램'에 참여한 상무대 군인들과 어린이들이 새롭게 멘토와 멘티 관계를 맺은 후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장성군 제공>

# 장성 상무대 병사들 아이들에 재능기부

### 매주 토요일 학습지도

### 월 1회 정서 멘토링도

장성 상무대 군인들이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 매주 토요일 재능기부를 하고 있어 화제다. 12일 장성군 드림스타트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8일부터 상무대 군인들이 정서적 소통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데 자신들의 소중한 시간을 기꺼이 할애하고 있다. 드림스타트센터는 멘토링 의사가 있는 상무대 장병 및 간부를 멘토로 선정, 저소득층 가정의 초등·고학년 남자 학생들에게 학습지도 및 정서 멘토링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모두 26회가 진행됐으며 이 기간 동안 상무대 군인들은 멘토별로 자신의 멘티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상무대에서도 멘토와 멘티의 문화체험 행사 시 차량을 지원해 주는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학습멘토링은 월 3회로, 아이들이 평소 애용하는 국어·영어·수학 등 기초과목을 1:1로 집중 지도하고 있다. 영어회화, 중국어 수업 등의 특화수업은 학년별 및 전체 집합수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학습지도에만 국한하지 않고 월 1회 정서멘토링을 실시해 영화, 레프팅 체험 등 문화체험을 통해 아이들이 미래의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고 있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참석해 온 한 장병은 "나의 보잘 것 없는 재능이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며 "제대 후 사회에 나가서도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 새 얼굴 "바른 인성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

### 윤 남 순 보성교육장

"바른 인성과 품격을 갖춘 창의적인 사람으로 키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보성군교육지원청 윤남순 교육장은 "그동안 보성 교육가족과 지역사회가 합심해 만들어낸 교육적 성과를 기반으로 보성 교육의 내실을 더 탄탄하게 다지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겸허한 자세로 학생과 교직원들의 여망에 부응, 열정과 행정력을 결집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윤 교육장은 첫째, 기초·기본

학력 정착과 함께 창의적 교육, 둘째, 바른 인성과 품격을 갖춘 따뜻한 교육, 셋째, 학교 중심의 책임경영과 소통하는 학교문화 형성에 노력하는 등 현장 중심의 신뢰받는 교육을 강조했다. 보성 출신인 윤남순 교육장은 전남도교육청 장학사, 교원정책과장, 정책기획관을 역임했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 EOS 6D

「 세계 최경량\* 풀-프레임 」

행사장소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오거리 소니센터 맞은편(개는총판) 문의전화 062)383-3000

##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전적이나 덤핑전적은 넣지 않습니다.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목포 274-5987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 02-454-7722